

정권교체 '양날의 칼' 秋다르크

〈추미애+잔다르크〉

뉴스분석
 더민주 첫 TK출신 대표 추미애 선출

내년 대선 이끌 지도부
 친문 인사들이 독식
 藥될수도... 毒될수도...
 비문 잠룡들 새 활로 찾아
 야권 지형 재편 가능성도
 정국 친박·친문 '강대강' 대결

내년 대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친문(친문재인) 체제'로 출범했다. 친문 진영의 지원사격을 받은 추미애 후보가 54%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는 등 지도부를 친문 인사들이 독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최고위원 8명 가운데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지역별 최고위원인 김영주 전혜철 심기춘 최인호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송현섭 노인 최고위원이나 김춘진 호남 최고위원 등도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다.

반면, 김상곤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민평연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범주류는 힘을 쓰지 못하고 이종걸 후보 등 비주류 역시 한 명도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꺾였다는 평가다.

문제는 친문 체제의 지도부가 더민주의 정권 창출에 동력이 되느냐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우려가 더 많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구축되면서 정권 창출의 역동성이 실종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 전 대표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친문 지도부 등장에 따라 윤신의 폭이 좁아진 비문 진영과 당내 잠룡들이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서면서 더민주를 넘어 야권의 지형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 최초의 제1야당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진(東進)'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영남당'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이 파격적으로 호남 출신 이정현 대표를 당선시키며 '서진(西進)'의 깃발을 든 것에 맞불을 놓은 격이다.

특히,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무려 8석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TK 대표의 함의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당내



“강한 야당”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당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는 호남을 정치적 텃밭으로 하고 영남의 민심을 움직여 중원인 충청의 지지를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더민주의 영남 대표-영남 대선주자가 현실화되고 당내 동진의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호남 민심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호남 민심 일각에는 친문 진영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영남 패권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호남 대표와 더민주 영남 대표 체제의 출범은 견고한 정치

권의 지역주의의 해빙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표 및 지도부가 각각 친박(친 박근혜)과 친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국 현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양당의 대표들이 공히 당내 주류 계파를 대리하는 '강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대표는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약속하는 등 대외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호남 대표와 더민주의 영남 대표는 정치권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당을 둘러싼 사정은 만만치 않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대표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민생과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압도적 1위... 지도부 '친문' 독식

여성 최고위원 광주출신 양향자

대구 출신의 5선인 추미애(서울 광진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됐다. 추신임 대표는 이번을 노리던 비주류 측의 바람을 잠재우고 경선 초반부터 이어온 대세 문을 승리로 연결시켰다.

추 대표는 지난 27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일반당

원+국민·25%)를 합산한 결과, 54.03%의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비주류의 이종걸 후보가 23.89% 2위를 차지했으며, 김상곤 후보는 22.0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여성 최고위원은 광주 출신 양향자 후보가 57.08%를 득표, 현역 재선 의원인 유은혜 후보(42.92%)를 누르고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조선의원이 김병관 후보가 55.56%의 득표율로 이동학(29.83%), 장경태(14.61%)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선

출했으며, 노인 최고위원은 비례 3선 출신인 송현섭 후보(60.14%)가 제정호(39.8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역별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 간 호선을 통해 3선의 김영주 서울시장위원장(서울·제주), 재선의 전혜철 경기도당위원장(인천·경기), 조선의 최인호 부산시장위원장(영남), 원외인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호남), 심기춘 강원도당위원장(강원·충청)이 확정됐다.

더민주의 이날 식재 논란이 일었던 '노동자 표현'이 복원된 강경·정책안을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광주서 대권도전 선언

“차별없는 무등산 시대정신 이뤄 정권교체 모든 것 바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8일 “국민의당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13 총선결과는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대선은 양 극단(보수와 진보) 대 합리적 개혁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제 양 극단은 과거이고 합리적 개혁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내년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체제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신념 간 충돌이 될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잠룡 영입과 관련, “국민 마음속에 합리적 개혁세력에 대한 생각이 잠복해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저희는 문호를 활짝 개방할 것이다. 스스로 시험대를 만들고 끊임없이 돌파해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경찰 신분증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임명 등과 관련,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래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트 광주’ 9만 관람객 몰렸다

역대 최대... 어제 막 내리
 900여 점·30억 원 판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 광주16’이 지난 28일 역대 최대 관람객을 동원하며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6면>

지난해에 이어 광주미술협회(회장 나

상욱)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관람객 9만 명이 다녀갔다. 2015년은 7만명, 2014년은 3만명, 2013년은 2만명이었다. 문화전당 개최와 개인작가부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아트페어는 13개국에서 74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개인작가부스는 115개가 조성됐다.

판매 작품수와 금액은 약 900점, 30억 원(추정)이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첫회 행사인 2010년 42억원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2015년에는 30억 원, 2014년 10억 원, 2013년 11억 8000만 원이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소송비화 나주버스 광주 운행 ▶6면



리아스식 해안
 전남 갯벌 10%가 사라졌다 ▶18면
 KIA 이범호·나지완 홈런대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